

'신출귀몰' 호남 의병, 전국 최대 항쟁 펼쳤다

천년 전라도의 魂

〈제1부〉 의로운 땅 〈6〉

⑤ 머지않아 국권이 회복된다-한말 의병

"장하도다 기삼연 / 제비 같다 전해산 / 잘 싸운다 김죽봉 / 잘도 죽인다 안 답살이 / 되나 못 되나 박포대"

한말 '위수' 불렀던 동요다. 여기서 김죽봉은 기삼연 부대의 선봉장 김태원을, 박포대 역시 기삼연 포대장 박도경을, 안답살이는 머슴 출신 의병장 안규홍을 일컫는다. 이런 노래도 생겨났다. "남일이 용마를 타고 / 산 밖으로 솟아 오르면 / 현수는 풍운을 조화하여 /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남일은 심남일 의병장, 현수는 강무경 의병장이다. 신출귀몰 전략으로 일본 군경의 간담을 서늘케 한 호남 의병장들을 칭송하는 노래다.

1908~1909년 日 군경 추산 교전횟수·교전의병

전라도 25%·24.7%... 1909년 47.2%·60% 달해

'불원복기' 휘날린 임란의병 고인후 11대 사손 고광순

국내 최초 부부의병 활약 강무경 의병장·양방매

국내 유일 한일의병사령부 유적지 '화순 쌍산의소'

막사터·무기제작소·유황굴 등 남아 '사적 485호'

한말 의병투쟁은 을미사변(1895년)으로부터 경술국치(1910년)에 이르기까지 15년동안 펼쳐진 '전쟁'이었다. 일제는 의병 토벌에 러일전쟁 때보다 많은 군대를 투입했다. 그리고 당시 전라도는 최대 의병 항쟁지였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가인 백암 박은식은 "대체로 각도의 의병을 말한다면 전라도가 가장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입증됐다. 1908년 일본 군경의 교전회수와 교전의병수에서 전라도는 각각 25%와 24.7%를, 1909년에는 각각 47.2%와 60%를 차지했다. 〈표〉

1913년 전라남도 경무과(일본 경찰)에

서 작성한 '전남폭도사'에는 전남 의병활동 시기와 거과(대표 의병장)를 제1기(1906-1907) 최익현·고광순·기삼연을, 제2기(1908) 김태원·김을을, 제3기(1909) 전해산·심남일·안규홍을 꼽고 있다.

◇'불원복기' 휘날리며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은 나라를 구하려고 몸바친 의병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다. 이 드라마는 본래 남아 있는 의병사건 한 장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1907년 영국 '데일리 메일' 특파원 프레데릭 아서 맥켄지의 사진 한 장, 총 든 노비·제빵사·인력거꾼 등 위기의 나



▲1909년 일본 군대의 '남한대토벌작전'에 끝까지 항전하다 체포된 호남 의병장들. 앞줄 왼쪽부터 송병은·오성술·이강산·모천년·강무경·이영준. 뒷줄 왼쪽부터 황장일·김원국·양진여·심남일·조규문·안규홍·김병철·갈사문·나성화 의병장.



▶영국 '데일리 메일' 중군기자 프레데릭 맥켄지(1869~1931)가 1907년 강원도에서 촬영한 '정미의병'. 그가 이듬해 출판한 '대한제국의 비극'에 수록됐다.

〈사진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라를 구하러 나선 민초들이 주인공이었다.

이들은 "빼앗기면 되잖을 수 있으나 내 어주면 되잖을 수 없다. 나라 팔아먹은 놈들은 목숨 걸고 안하지만, 나라 지키는 사람들은 목숨걸고 지킨다. ...이러다 결국은 죽겠지. 하지만 좋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게 훨씬 낫다."라며 비장한 독백을 이어간다.

그리고 엔딩의 태극기, 한말 호남 의병장 노천 고광순(1848-1907)의 '불원복기'를 연상시킨다. 노천은 전투에 임할 때 태극기를 들었는데, 그 태극기에는 '不遠復(불원복)'이라고 쓰여 있었다. "멀지 않아 국권이 회복된다"는 뜻이다. 그 깃발은 현재 전남 독립기념관에 있다.

고광순은 세차례 귀국한다. 을미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송사 기우만·성재 기삼연 등과 의병을 일으켰고, 을사늑약 이후에는 면암 최익현 의병에 참여했다. 하지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 한채 의병을 해산하자 자신이 의병대장의 깃발을 내걸었다. 그것이 '불원복기'다.

고광순 의병부대는 능주 양회일·장성 기삼연 의병부대와 함께 광주진공작전을 펴지만 최신헌로 무장한 일본 군경에 막혀 실패했다. 게릴라전을 전개하던 그는 1907년 10월 16일 지리산 피아골 연곡사에서 일경의 기습을 받아 10여 년간 풍찬노숙하며 항일 활동을 펼쳤던 동지 13명과 함께 순절했다.

고광순은 임진왜란 의병장 의열공 고인후의 11대 사손(제사 모시는 후손)이다. 의열공의 아버지는 충열공 고경명이고, 형은 효열공 고종후다. 이들 삼부자는 임진왜란때 순절, 세상은 충효고가(忠孝古家)라고 일컫는다. 삼부자의 의혼은 3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고광순의 의혼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부자·형제 의병장, 그리고 부부 의병 한말 최대 의병 항쟁지인 전라도는 가슴 아픈 수많은 사연을 안고 있다. 형을 따라 동생이, 아버지를 따라 아들이, 남편을 따라 아내가 나섰던 의병들의 모습은 코끝을 시리게 한다.



화순 쌍산의소 한일의병 유적지 대장간터 전경.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재연구소 제공〉

◇국내 유일 의병근거지 '화순 쌍산의소' 화순 쌍산의소(雙山義所)는 우리나라 유일 한일의병사령부 유적지다. 화순군과 보성군 경계에 있는 계당산(속칭 쌍치재) 아래 중동을 중심으로 쌍봉사, 쌍봉마을 일대에 막사터, 무기제작소, 유황굴 등이 남아 있다. 특히 무기제작소인 대장간터에서는 철을 생산하는 제련로, 생산된 철을 직접 가공하는 단야로, 슬러그베기장, 수혈, 목탄저장소, 건물지, 축대 등이 발굴됐다.

이는 단순 게릴라전에 그치지 않고, 기지를 구축해 의병을 기르고 무기를 제작하는 등 체계적으로 일제에 항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한일의병 유적지가 '항쟁지'인 것과 달리 이곳은 의병들이 생활하고 무기를 생산했던 근거지라는 점이 특징이다.

쌍산의소는 양회일·양회룡 형제의병장이 활약했던 곳이다. 양회일 의병장은 "충의의 백성들이여! 원수에게 잡혀 부림을 당하겠는가, 오직 죽을 뿐"이라고 맹서한 뒤 1907년 3월 9일 거병했다.

쌍산의소에는 인근 능주·보성 뿐만 아니라 전북 남원·정읍, 평남 정주에서까지 의사가 모여들어 사기가 충천했다. 능주를 점령했지만, 광주진공작전이 실패한 뒤 쫓기다가 체포돼 세번째 옥고를 치르던 중 "너희가 천하의 의사를 다 죽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단식투쟁을 하다 순절했다.

쌍산의소는 의병전사의 요람이었다. 참모장 양열묵은 고광순 의병부대와 합류했고, 도포장 유화국은 기삼연의 호남창의회맹소 군량관으로, 안천재는 심남일부대 중군장, 임창모는 안규홍부대와 연합작전을 폈다.

한말 의병사에 빛나는 문화유적인 '쌍산의소'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지난 2007년 8월에 사적 485호로 지정됐다.

조용의 전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쌍산 항일 유적은 국가사적지로 철저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호국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각 도별 교전 횟수와 교전의병수

(1908년 후반~1909년 전반)

구분	교전횟수(%)		교전의병수(%)	
	1908년	1909년	1908년	1909년
경기도	87(4.0)	166(9.5)	1,453(1.8)	3,453(9.0)
충청남도	217(11.0)	138(7.9)	7,666(9.2)	1,003(2.5)
충청북도	113(5.7)	66(3.8)	6,815(8.0)	832(2.2)
전라남도	274(13.9)	547(31.5)	10,544(12.7)	17,579(45.5)
전라북도	219(11.1)	273(15.7)	9,960(12.0)	5,576(14.5)
경상남도	153(7.7)	61(3.6)	3,328(4.0)	934(2.4)
경상북도	158(7.9)	161(9.3)	5,702(6.9)	3,667(9.5)
강원도	273(13.8)	124(7.2)	18,599(22.5)	2,468(6.4)
황해도	232(11.7)	111(6.4)	7,998(9.7)	2,148(5.5)
평안남도	108(5.5)	61(3.6)	1,391(1.7)	540(1.4)
평안북도	41(2.1)	17(0.5)	2,590(3.1)	123(0.3)
함경남도	99(5.0)	14(0.9)	6,438(7.8)	270(0.7)
함경북도	11(0.6)	-	283(0.3)	-
합계	1,976	1,738	82,767	38,593



불원복이라 쓰인 태극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165,000 원 (VAT포함)

2019년 3월 27일 (수)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 062-228-4711~2

신양파크호텔

봄맞이 디너쇼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룰케일 증명)

2019 Dinner Show

박상민

ShinYang Park Hotel